

# 해남군, 2.9조 투입... '국가 AI컴퓨팅센터' 건립 속도

삼성SDS컨소시엄, 건축허가 접수  
2028년 10월 말 최종 준공 목표  
전력망 위한 154kV 변전소 설치도



국가AI컴퓨팅센터 조감도.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삼성SDS컨소시엄은 지난 3일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건축허가를 해남군에 접수하였고, 국가AI컴퓨팅센터는 4만9500㎡(1만5000평) 부지에 연면적 3만3000㎡(1만평) 규모로 지진과 화재에 강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됐으며, 지상 2층의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동이 들어선다.

군은 4월 중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 분야 도서 착수 및 구조 계산 등 후속 공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계를 마무리하고 3분기에는 과일 및 토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28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8년 4월 시

범운영, 10월 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건축허가에 앞서 필수적인 지구단위계획 및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삼성SDS 컨소시엄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이어왔다. 또한 향후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건축인허가 접수를 시작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은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AI 시대의 국가전략자산인 컴퓨팅 인프라가 해남군에 들어섬에 따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축이 해남군으로 이동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 1만5000장을 탑재하고, 초거대 AI 모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적 AI 컴퓨팅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저탄소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친환경

인프라의 모델로 설계되고 있다.

해남군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전력망 확충을 위한 154kV 변전소 설치 인허가가 조만간 완료될 예정으로 오는 7월 착공,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가동되는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남군은 전력망 확충을 마중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추가 유치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과 연구소들이 모여드는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의 건립에만 약 2조9000억원이 지역에 투입되며, 건설 기간 중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완공 후 국가AI컴퓨팅센터를 비롯한 연계 연구 기관 및 배후단지에 들어설 부품 등 제조업 등에 일자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주시

#### 근로자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

영주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근로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로 동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고등학생 연 70만원, 대학생은 연 250만원 범위에서 등록금 150만원과 생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완도군

#### 지역 전략산업 지원 주택 건립

완도군은 신지면 대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내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을 건립한다.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 건립 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에 선정됐으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착공한다.

사업비는 총 108억원을 투입하여, 주택 연면적은 2603㎡로 지상 4층의 공동주택 2동과 지상 1층의 부대시설 1동이 들어서며, 43세대는 25㎡(12평형), 24세대는 34㎡(16평형) 12세대는 59㎡(25.7평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세대를 세분화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 부산근현대역사관

#### 매주 토요일 '인문 콘서트' 운영

부산근현대역사관이 부산 개항 150주년을 맞아 4월부터 8월까지 매주 토요일 인문 콘서트 '부산의 길을 묻다'를 개최한다. 행사는 역사관 별관에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월별 주제는 개항과 부산·부산의 시대·부산의 힘·부산의 유산·부산의 미래로 구성된다. 역사학·문학·민속학·정치경제학·도시계획학·미술학·기상학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자 15인이 연사로 나선다.

/부산=이도식 기자

### 경상국립대

#### 경남·울산 합동 채용 설명회

경상국립대학교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7일 가좌캠퍼스 체육관에서 '2026년 경남·울산 지역 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국립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경남·울산 이전 공공기관 15개와 지역 중소기업 6개 기관, 항공, 방산, 관광 등 도내 34개 기업을 포함해 총 55개 기관이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경남=이도식 기자

## 경북도, 어업용 유류비 25.8억 지원

어업인 월간 추가부담 21.5억 추산  
인상분 20%, 6개월간 한시적 지원

경북도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어업용 유류비 25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긴장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며 4월 기준 어업용 면세유 공급단가는 전월 드림당 17만7000원에서 27만6000원으로 56.1% 상승했다. 유류비는 출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어업활동 위축과 수산물 생산 감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 지역 동력어선은 2700여 척으

로, 지난해 기준 월평균 2만1500드림 이상의 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가격 상승으로 드림당 약 9만9000원이 오르면 어업인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월간 유류비는 약 21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인상분 9만9260원의 20%를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기준가격 초과분의 70%를 지원해 유가 급등에 따른 수산업 기반 약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응해 도·시군비 28억원을 투입했으며, 2023년에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16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경북교육청, 교육자료 '월간 독도' 제작

독도 교육 지속성·접근성 강화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월별 교육자료 꾸러미 '월간 독도'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교원 독도탐사단 현장 영상과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성됐으며, 영상과 교수·학습자료, 참여형 퀴즈, 카드뉴스 등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월별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 흥미

를 높이면서 교원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자료가 기획됐다. 이를 통해 독도 교육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높이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월간 독도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배포된다. 월별 주제는 4월 독도의 위치, 5월 독도 바위, 6월 독도에 사는 사람들, 7월 독도의 자연환경, 9월 독도의 인문 환경, 10월 독도 수호대, 11월 독도는 왜 우리나라 땅인가, 12월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 함양군, 170억 투입해 거면·인당지구 정비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함양군이 십수 년간 이어온 축사 악취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8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함양읍 소재지와 맞닿아 있는 거면·인당지구 축사 밀집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과 축사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악취 민원이 십수 년에 걸쳐 제기돼 왔다. 읍 소재지가 확장되면서 환경 개선 요구는 높아졌지만, 농가의 생업 문제와 대규모 예산 확보라는 벽에 부딪혀 수차례 정비 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공모 선정의 배경에는 주민, 농가, 행정의 협력이 있었다. 특히 평생

일궜은 생업 기반을 내려놓아야 하는 축사 농가들이 "지역의 미래와 읍 소재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동참하겠다"며 결단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의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군 실무진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주민, 농가, 행정 간 신뢰로 이어진 결과라는 평가다.

군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70억원을 투입해 거면·인당지구를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축사 시설 정비를 통한 '공간 정비'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 재생'으로 나뉜다.

정비 대상 지구 내 돈사, 우사, 폐축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는 귀농귀촌 실습장, 주민 휴식 공간, 공용주차장, 퇴사림숲 등을 조성해 정주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에서 '시장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도시 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부산시-아고다, 해외 관광객 숙박 혜택

최대 5%, 1만2000원 할인 쿠폰

부산시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아고다(Agoda)와 함께 부산관광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마케팅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에서 체결한 관광 교류·협력 업무협약의 첫 사업이다.

시는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신성장 시장 5개국을 중심으로 아고다 플랫폼을 활용해 글로벌 관

광허브도시 부산을 홍보할 계획이다.

'잊을 수 없는 부산(Unforgettable Busan)'을 주제로 해운대,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해동 용궁사 등 대표 관광지뿐 아니라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와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등 야간관광 명소도 소개한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7월20일까지 부산을 찾는 해외 관광객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아고다 플랫폼을 통해 부산 지역 숙박 업체를 예약하는 해외 관광객에게는 예약당 최대 5%, 최대 1만2000원의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부산=이도식 기자